금융개혁의 성과와 과제[1)]

사실, 금융 개혁은 외환위기 이후 갑작스럽게 대두되었던 정책 과제는 아니었다. 80년대 들어 금융 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금융 개혁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그 목표와 내용이 달라졌다.

80년대 초반 이후 각종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기능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금리 자유화, 진입 장벽 완화 등 금융 자율화가 추진되었으며, 90년대 들어서는 WTO 출범, OECD 가입 등을 배경으로 금융과 자본 시장의 개방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최근의 예로는 1997년 1월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금융의 하부 구조라 할 수 있는 중앙 은행 및 금융 감독 제도 개편 등 전반적인 금융 개혁 방안이 논의되었고,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금융 개혁 작업에도 불구하고, 금융 부문의 취약성은 시정되지 않은 채, 실물 부문의 외형 확장 위주 전략의 부작용과 맞물리면서 경제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경제 위기를 맞아 금융 개혁은 위기 이전의 금융 자율화, 시장 개방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다시 말해, 위기 극복 차원에서 과거의 누적 부실을 털어 내는 동시에 시장의 힘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금융 개혁의 최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회생 가능성이 없는 400여 개 부실 금융 회사를 정리하는 한편 공적 자금을 활용하여 금융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을 매입·처리하고 금융 회사의 자본을 확충하였다.

이와 함께 선진국 수준으로 금융 회사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적기 시정 조치 및 FLC 제도 도입 등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하였다.

개혁에 완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 시한을 정해 놓고 추진한 2단계 금융 구조 조정을 일단락 지은 지금, 그 성과를 논하는 것은 너무 이를 뿐만 아니라 제대로 평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다만, 당초 금융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정해 놓았던 목표

1) 이 글은 지난 2월 22일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서 있었던 김호진 노동부 장관의 강연 내용을 정리한 것임.

를 얼마나 달성하였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기 초기에는, 부실 금융 회사를 정리하고 금융 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 시장의 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때이른 자기 만족 현상 등으로 개혁 모멘텀(momentum)이 약화된 데다가, 반도체 가격 하락, 유가 상승 등 경제 여건도 악화됨에 따라 경제가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2000년 8월부터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 개혁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시장 시스템에 의한 구조조정의 중간 목표로서 2단계 금융 구조 조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 시장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안정된 모습을 되찾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직접 개입 없이 금융 회사 스스로 자기 혁신을 통해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틀을 구축한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이에 더하여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금융 회사도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시장 내에 확고히 정립하는 한편 이해 당사자간 손실 분담 원칙을 철저히 지켜 나감으로써 시장 시스템 작동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에 예금자나 금융 회사들이 리스크를 고려하여 투자 의사 결정을 하거나 경영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 금융 회사들이 금융 지주 회사 설립과 대형 우량 은행간 합병 등을 통해 금융의 대형화·겸업화로 대변되는 국제 금융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그 동안 취약하였던 금융 회사 대출 시장이 상당히 건전해졌고, 주식, 채권 등 자본 시장도 대폭 확충되는 등 이들 시장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함으로써, 우리 금융 시스템이 외부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모습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지난 3년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였지만 여전히 우리 금융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 자산 규모, 건전성, 수익성, IT투자 등 많은 부문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21세기 디지털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지식 기반 산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금융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감으로써 금융 시장 안정과 실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의 기초를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그동안 구축된 상시적 구조 조정 시스템이 시장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공시·신용평가 등 금융 시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본·금융 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 규율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은행 등 금융 회사의 대형화·겸업화를 위한 자율적인 통합 분위기 확산에 맞추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형 선도 금융 회사를 출현시켜 나가는 한편, 중·소형 금융회사도 특성에 맞는 경영 전략과 과감한 경영 혁신을 통해 나름대로 전문 분야 또는 틈새 시장에 특화하도록 하여 계층화된 선진적 금융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금융 회사의 대형화·겸업화는 개별 회사 입장에서는 일부 대기업의 부도 등 외부 환경이 악화될 경우에도 정상 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측면도 있으나, 동시에 금융 회사가 높은 경영 위험을 안게 되며, 이러한 위험이 과도해질 경우 전체 금융 시스템에 급속히 파급되어 그 영향이 커지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금융 회사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운용해 나가야 한다.

감독 당국도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확보하는 차원뿐만 아니라 2004년 시행 예정인 新BIS 자기 자본 규제에 대비한 사전 준비 단계로서 건전성, 리스크 관리 등 금융 감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금융 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독 방법도 수요자 위주로 시장 친화적인 방법으로 선진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 회사 스스로 적정 예대 마진 확보, 업무 제휴 등을 통해 수익 기반을 확충하고, 신용 대출 활성화 등 여신 관행을 선진화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수익력과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 산업은 지식 집약형 산업으로서 우수 인력의 확보 여부에 따라 금융 회사의 존폐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금융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되겠다.

우리는 지난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금융 부문의 중요성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금융 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21세기 대표적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당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회성 개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대내외 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자기 혁신 작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